

평등은 내가 교단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었던 교육이었다. 40여 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깨달은 것은, 평등은 거창한 구호나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 믿음은 교실에 머물지 않고 우리 집 식탁으로 이어졌으며, 시간이 흐른 지금은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교직 초창기만 해도 남학생은 ‘○○군’, 여학생은 ‘○○양’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 그러나 나는 학생들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 이름은 성별보다 먼저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존재를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교실 안에서 이름이 정확히 불릴 때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그 작은 변화의 힘을 믿게 되었다. 이름을 온전히 불러 주는 일은 그들을 성별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작은 약속이기도 했다.

교실에서도 성별에 따라 역할을 나누지 않았다. 청소 시간이라고 해서 힘쓰는 일은 남학생, 정리하는 일은 여학생의 몫으로 정하지 않았다. 학급 행사에서도 능력과 관심에 따라 역할을 맡도록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일이 훨씬 자연스럽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별한 양성평등 교육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일상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교실에서 지키려 했던 원칙은 가정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면 아들과 딸은 함께 앞치마를 둘렀다. 한 아이는 설거지를 하고, 다른 아이는 식탁을 닦았다. 어느 날은 역할을 바꾸기도 했고, 바쁜 날에는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나설 때도 있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귀찮다며 투덜거릴 때도 있었지만, 나는 “이 일은 엄마를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아들이라고 집안일을 면제하지 않았고, 딸이라고 부엌일만 맡기지도 않았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은 누구나 익혀야 할 삶의 기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된 작은 실천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이 되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자라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평등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몸으로 익혀지는 가치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얼마 전 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다. 식사가 끝나자 사위는 말없이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딸은 행주를 들어 식탁을 정리했다.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는 모습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오래전 우리 집 식탁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웃으며 설거지하던 아들과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월은 흘렀지만, 내가 믿어 온 평등의 모습은 그 장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다.

교단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우리 가정을 거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평등은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름을 존중해 부르는 일, 집안일을 함께 하는 일, 서로의 수고를 기꺼이 나누는 일처럼 사소해 보이는 실천들이 쌓일 때 비로소 평등은 삶의 문화가 된다. 거창한 구호보다 일상의 습관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나는 교단과 가정에서 배웠다.

퇴직한 지금도 나는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삶을 스스로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것 또한 평등의 실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했다면, 이제는 내 삶이 그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퇴직 이후의 일상도 여전히 하나의 교실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평등을 특별한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이름을 존중

해 불렀고,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앞치마를 둘렀을 뿐이다. 그 작은 실천들이 세월을 건너 오늘 우리 가족과 제자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도 나는 믿는다. 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교단에서 시작되어 식탁으로 이어지고, 다시 다음 세대의 삶 속으로 전해지는 가장 따뜻한 생활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았다.